



# 전주매일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지도당 유세단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상윤 의원, 이원택 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등이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 같은 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김관영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본격 선거운동 체비에 들어갔다.

**서남권 해상풍력 2.4GW 발전단지 조성 '마지막 퍼즐'**

**도, 확산단지2 1GW급 사업시행자 공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21일 서남권 해상풍력 2.4GW 발전단지 조성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확산단지2 1GW급 사업시행자 선정 공개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 대상 지역은 3월 기후에너지 전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부안 인근 해역 약 173.5km로, 1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산단지 2에 해당하는 사업 구역이다.

해당 사업은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계획'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모는 대표사·참여사 모두 국내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참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인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주인 수송성 확보 방안 △산악인프라 구축 전략 △기타 사업 제인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 및 운영 기간, 참여 자격 및 조건, 공모 선정 절차와 일정, 도의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하고, 참여 기관·기업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를 진행한 부안 800MW 공공단지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1단계 평가를 마치고 현재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다. 도는 오는 6월 중 2단계 평가를 완료하고, 7~8월 중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

## 6·3 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심잡기 총력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전북지역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른 새벽부터 거리와 시장, 산업현장 등을 누비며 본격적인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성장', '민생', '정권 견제', '서민 정치' 등을 앞세우며 첫날부터 치열한 눈치싸움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유세를 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찾으며 산업·경제 중심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오전 6시 20분께 공장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 지난 3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소사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현대차 공장을 찾은 것은 새만금 9조 원 조기 부자를 반드시 성사시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전북도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이원택·김관영 등 도지사 후보들, 출정식 갖고 표심 잡기

교육감·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지역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

전북 발전·민생 회복·정치 개혁 등 농고 후보 간 경쟁 치열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전북의 성장 시계를 다시 움직여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전주시 덕진구 가련광장사거리에서 열린 도지사 후보 유세단 출정식에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출정식 기자회견에서는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상윤 최고위원 상임 선대위원,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청 사거리에서 열린 도당 유세단 출정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팀으로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군산으로 이동해 지역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이어갔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간인 0시, 청년 지지자 40여

이러했으며, 시민들은 손을 흔들거나 차량 경적을 울리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의 예상 밖 호응에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날 10시에는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도민 후보' 추대식을 겸한 출정식에 여러 체육인과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 도민 등 추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참석하며 김 도지사 후보 지지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하며 출정식을 대신했다. 양 후보는 나후된 전북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 역시 전주 안행고 사거리에서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와 함께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백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 중심 정책을 내세우며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무소속 김성수 전북도지사 후보도 이날 오전 9시 전북도청 앞에서 거리 유세를 받으며 도민들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천호성 후보는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오전 7시 30분경 첫 유세를 시작한 뒤 도교육청 기자회견, 전북대 구정문 유세단 발대식, 전북교육청 사거리 합동유세 등을 이어가며 강행군을 펼쳤다.

이남호 후보 역시 오전 7시 30분경 전주경기장 사거리에서 첫 거리 인사를 시작한 뒤 전북대 구정문과 전주 에코시티, 군산 롯데몰 사거리 등을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저녁에는 전북대 구정문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세 걸출에 나섰다.

이날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과 교육감 후보들뿐 아니라 시장·군수, 지방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 모두 451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4명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각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

새벽 시장과 거리, 산업현장, 대학가 등 곳곳에서 출정식과 유세가 이어지며 지방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면서 전북 정치권도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북 발전과 민생 회복 정치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25일 '부처님 오신 날'로 인한 대체 휴일 지정에 따라 신문은 26일 발행합니다.



전주매일 캠페인